



梧村雜記

柳永博

〈서울大學校 文理大 敎授〉

1. 체제(體裁)

梧村雜記의 체제는 먼저 가로 14cm, 세로의 길이가 22.7cm이며 한장수사본(漢裝手寫本)으로, 사용한 용지는 어떠한 일제초기(日帝初期)의 인찰지인듯 하다. 그리고 이 梧村雜記는 모두 10권 5책으로 한권을 2권씩 합본(合本)하였고 한권 당 평균 100면(面) 정도의 분량이다. 사용한 용지인 인찰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縱線으로 10행(行)인데 그 일행(一行)은 1.2cm, 그리고 전체의 길이는 18.2cm이다. 한줄 평균 25자(字)가 쓰여져 있다. 그러므로 梧村雜記 한장(2面)에 500자 정도의 漢字가 수사(手寫)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입수(入手)

국토편력(國土遍歷)이란 여러가지 의미에서 얻는 바가 많다. 그래서 일부터 기차나 배스를 타지 아니하고 강산을 두루 밟아 나서는 旅情을 자주 가져 오는 터이다. 서울에서 남(南)으로 綿江을 건너기 전 10리허(十里許)에 날이 저물어, 어느 마을 농가에서 그 밤을 묵기로 했다. 5년전의 일이었다. 지금 그 때의 날자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나, 아무튼 秋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綿江을 건넜다고 생각된다. 그 綿江 북쪽의 2, 30리는 公州 평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하룻 밤을 지낸 그 마을도 물론 넓은 들판에 자리 잡고 있는 부락이다. 저녁을 마친 다음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집 넓다란 마당, 명석을 펴 놓은 여러 좌중(坐中)에 나도 함께 앉았다. 화제(話題)는 물론 체제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촛점도 없이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밤이 깊었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나는 그 마을을 떠났다. 아침 이슬에 아랫도리가 다 젖은 채 큰 길에 나와서도 10리는 넉넉히 더 걸어 가셔야 금강에 다달았다. 공주에 들어서서 아침을 먹고 원편 쪽으로 鷄龍山을 바라보며 일로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전라북도 금구로 가는 길이다. 이날의 일정(日程)은 여산에서 점심을 들고 삼에 땅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던 다음 날에는 금구를 찾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날 점심을 여산 장터에서 사먹은 것까지는 제대로 되었지만, 오후부터는 예정대로 가지 못하고 삼에 읍을 10여리 앞두고 그만 해가 저물고 말았다.

그 맑고 검푸른 금강에 아침 햇살이 비쳐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줄기를 굽어 보며 금강을 배로 건너는 이 틀만에 금구에 다왔다. 이 마을에는 저 유명한 한말(韓末)에 순절한 장철(張鐵)의 후예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 분은 한말의 벼슬 병조(兵曹)의 참판(參判)까지 지낸 분으로 나라 잃은 분노와 슬픔을 어찌하지 못하여 끼니를 폐하고 굶어서 자결한 순국 열사의 한 분이다. 이 梧村雜記는 이 마을 張氏 門中에서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본래가 장씨 가문의 소장은 아닌 것이 분명하여 아마도 그 후손들이 古書를 간직하는 도중, 어디서 발견하고 가격과 두어 돈 책으로 짐작된다. 梧村雜記 5책을 입수한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 많은 자료(資料)와 사료(史料)들을 조사 열람하고 후일 다시 찾을 것을 기약하며 태인으로 향했다.

3. 내용(內容)

이 梧村雜記는 한말(韓末)연구에 크게 도움되는 사실을 많이 보여 주는 사료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가 인정된다. 梧村雜記 卷九와 十은 梧村雜記 第五冊에 해당되는데 그 가운데 내용은 거의 다 일제가 부설한 京·釜鐵道 건설에 관계되는 기록과 또 하나는 俄·日戰後, 그 중에서도 아라사 海軍과 일본 해군의 싸움에 대한 소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태 풍속과 기이(奇異)한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梧村雜記의 저술연대(著述年代)가 분명히 어느 때이며 저자(著者)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일후에 더 깊이 파헤쳐 연구하면 저자도 연대도 구명(究明)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내가 믿는 바로서는 이 梧村雜記의 저술연대는 1910년 전후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 한가지 근거(根據)될 만한 것으로 이 梧村雜記의 마지막 부분인 제5책에 수록된 내용이 俄·日전쟁에 관한 것을 상세히 취급하고 있음으로 보아서 그러하며 또 하나는 사용한 인찰지가 일제의 것이라는 점 등으로 우선 그러한 추정(推定)을 내리본 것이다.

梧村雜記卷九

A. 駐京日本國京釜鐵道會社總裁男爵古市公威謂本會社常務理事川崎寬美日京釜鐵道敷設之時韓國人中有特別功勞之人處各以本國王寶堂主人井上明太郎及帝室技藝委員海野勝珉之製造銀花瓶一對式寄贈以表其功而見漏之人大邱郡守金漢鼎清道郡守李載紀文義郡守徐丙益永同郡守崔英根尙州郡守安學柱慶山郡守李啓密密陽郡守趙鍾緒公州郡守閔泳會忠清南道觀察使李乾夏處亦贈銀製花瓶一對式酬其功勞可也川崎寬美日該人員等亦有一體之功勞而置之不問則是有此厚彼薄之嫌也一體寄贈花瓶一對式少無厚薄之分於理穩當而使彼見漏之人亦無憾情可也

B. 寄贈銀鍍花瓶一對於宮內府大臣陸軍副將閔泳喆曰此花瓶與國王寶堂主人井上明太郎及帝室技藝委員海野勝珉之製造而有緻密之與國富士山及鷄像眼之雕刻故敢以此瓶寄贈以報前日京釜鐵道特別之功勞也泳喆曰余於貴鐵道敷設之時少無寸功而令受該花瓶則是自誇其有功也

C. 京釜鐵道敷設之時着手順序區間及起工竣工年月等摘記則第一着手釜山港方面自草梁津致龍浦爲十哩三十三鎖而日本國明治三十四年九月起工至翌三十五年十月竣工而初則以建築列車運轉也

D. 第二着手釜山港方面自龍浦至密陽郡爲二十六哩三十五鎖而日本國明治三十五年八月起工至翌三十六年十二月竣工也

E. 第三着手釜山港方面自密陽郡至省峴爲二十五哩四十鎖而日本國明治三十六年四月起工至翌三十七年三月竣工之豫定矣

F. 第四着手釜山港方面自省峴至永同郡爲七十七哩三十二鎖而日本國明治三十六年十二月依本國勅令定速成方針而改測線路至翌三十七年三月起工至同年十月竣工全部也

G. 光武九年五月二十五日舉行盛大之開通式而令間線路介在之隧道及橋梁則隧道總數爲二十四個處而最延長自清道郡至慶山郡間所在之省峴隧道也洛教日省峴隧道之延長爲三千九百四十八呎也

H. 駐京日本國遞信省大臣子爵大浦重信韓國光武九年五月二十八日下午六時特設晚餐會與日韓兩國武大官酬酢之際聞大海戰全勝之報願謂座上諸人曰今日此宴席聞此喜報則不勝欣賀也諸實咸賀曰大海戰全勝之報來到于盛宴之時則尤加一層盛況也

I. 權博士鳳集謂金主事思重日光武九年五月二十八日下午六時駐京日本國遞信省大臣子爵大浦重信特設晚餐會于京城貞洞駐在英國人孫漢慶邸而參會之人駐京日本國駐劄軍司令官陸軍大將男爵長谷川好道駐京日本國駐劄軍司令部參謀長陸軍少將落合豐三郎駐京日本國公使林權助駐京日本國公使館一等書記官萩原守一駐京日本國憲兵司令官陸軍中將高山逸明駐京日本國京釜鐵道會社總裁男爵古市公威駐京日本國警察署長齊藤金祐駐京日本國郵便局長池田十三郎駐京日本國領事官三增久米吉韓國度支部顧問官日本國大藏省書記官賀田種太郎韓國軍部顧問官日本國陸軍中佐野津鎮武韓國宮內府顧問官兼農工商部顧問官日本國前公使加藤增雄韓國警務廳顧問官日本國警視丸山重俊韓國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沈相薰宮內府大臣陸軍副將閔泳喆內務大臣陸軍副將李址鎔外部大臣李夏榮度支部大臣署理度支部協辦柳正秀軍部大臣陸軍副將李容翊法部大臣陸軍副將李根滄學部大臣李載克農工商部大臣陸軍副將朴齊純通信院總辦署理通信院會辦金在珣警務使陸軍參將申泰休漢城府判尹朴義叟也思重曰此日宴席之際大海戰

全勝之報致着而大浦重信聞之自席上公表志氣揚揚添加一層之盛況也

J. 閔參尉丙玉謂崔主事永澤曰慶尙北道各郡地方暴民漸至滋蔓或稱義兵或稱活貧黨而百晝場市及村間橋行掠奪錢穀故民不安堵挈家避亂者無數也永澤曰該黨自該道龍宮醴泉兩郡等地創起也

K. 竹山郡守李源商報告于內務大臣陸軍副將李址鎔日本郡境內近日義兵團屯聚行無常而光武九年五月二十九日樞商等自京城下來揚言曰日本國艦隊同月二十八日大破全滅俄國軍艦于朝鮮海上捕虜該國司令官矣該義兵等聞之自然有喪氣之穢而相謂曰吾輩所望多有狼狽之事情則不如早歸力農也悔恨者甚多云故茲以馳報以此下燭伏望云

L. 鄭秘書丞準民謂金參奉宅洙曰令番大海之戰俄國艦隊參與之總數合計二十七隻而其中戰艦八隻裝甲海防艦三隻巡洋艦八隻驅逐艦八隻有之也宅洙曰俄國海軍司令官海軍中將老悌些度禹覆些其哥大平洋上聯合第二第三兩艦隊而變更其組織爲聯合艦隊光武九年五月二十日來着于舟山列島之北方馬鞍島而整頓戰鬪之準備發向于對馬島海峽也

M. 京城南署泥峴駐在日本國皮牢靴製造革堅類販賣商店主元祖萩原永吉廣告曰與店製造之靴類專以流行爲主而非但堅牢之無此約定之期限必不背約而製造矣新造修理之僉君子通奇則即爲晉拜又遠隔之地方注文則以代金相摸小包郵便直時送呈且馬具及其他皮物修理故茲以廣告僉君子以此照亮特爲愛顧千萬伏望云

위의 원문(原文)은 梧村雜記 권9와 10에서 13개의 기사(記事)를 뽑은 것이다. 梧村雜記 제5책에는 278개의 기사가 수록 되어 있는 바, 제9권에는 143개, 제10권 속에는 135개의 기사가 적혀 있다. 즉 A에서 G까지 7개의 기사는 일제가 한국에 침입한 이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철도를 부설할 때의 관계기사(關係記事)이며 다음 H, I, L의 3개의 기사는 俄日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J, K 2개의 기사는 한말 의병(義兵)에 관한 것이고 끝으로 M은 한말(韓末)에 있었던 광고(廣告)의 일례(一例)를 하나 들어 본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부선은 일제의 대륙정책(大陸政策)의 기초가 되는 막중(莫重)한 사업의 하나로서 俄日전쟁 중에 부설된 것이었다. 이 사업을 둘러 말은 경부철도회사(京釜鐵道會社)의 총재인 古市公威는 동사(同社) 상무이사에게 이 공역(工役)에 협력한 한국 사람에게 그 공(功)을 표창하기 위하여 일본의 玉寶堂 주인 井上明太郎과 帝室技藝委員 海野勝珉이 만든 銀花瓶 하나씩을 주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에 일본서 만든 은화병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도가 경유하는 그 지방의 군수(郡守)들이었으며 그 밖에도 중앙 정부의 고위관리가 포함되었다.

또 하나는 경부선 철도 부설 공사에 있어서 그 착공(着工) 구간(區間)의 순서를 보면 참으로 흥미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의 일이어서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이 때에 비교하여 생각하면 무척 석금(昔今)의 감회가 없지 않다.

H항(項)과 I 항은 아일전역(俄日戰役)의 승리를 듣게 되는 날의 감격을 자세히 기록 하고 있어 크게 참고가 되고 있다. 즉 광무(光武)九년 5월 28일 오후 6시 貞洞에 있는 손타크 호텔(孫澤嬢)에서 일본 체신성 대신인 大浦重信이 베푸는 특별 만찬회가 열리었다 이 때에 한일 양국의 최고위 정객들이 합석하고 있었는데 그 때 마침 일본 해군이 아라사 함대를 크게 무찔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때에 소위 <海戰全勝之報>를 듣고 연회는 그 분위기가 한층 더 성황을 이루어 그 절정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 연회에 참석한 한국의 정객들은 다음과 같다. 參政대신 沈相薰, 陸軍대신 閔泳喆, 陸軍副將 李址鎔, 外部대신 李夏榮, 度支대신 서리 柳正秀, 軍部대신 李容翹, 法部대신 李根濬, 學部대신 李載克, 農商工部대신 朴齊純 등 12명이 넘는 거의 전각료(全閣僚)가 참석하고 있었다. 일본이 淸國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아라사를 싸워 이기게 되면 그 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한국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라사와 싸워 이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터인데 마침 승리의 소식을 들은 손타크 호텔의 만찬회 분위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드러

어 일본은 이 俄日전역에서 승리하고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완전히 독점 지배하는 데 국제 열강의 승인을 얻었다. 이 때가 1905년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나날이 한국의 국운(國運)을 기울게 하였지만, 한편 우리 국내에서의 항일운동과 그 투쟁은 또한 치열하게 불타 오르고 있었다. 즉 각처에서 의병(義兵)이 들고 일어나 싸운 것이다. J와 K의 내용이 그 중의 한가지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의병으로 나라를 건지고저 싸우던 많은 사람들이 아라사가 일본에 패전(敗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낭패스러워 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 <悔恨者甚多>라한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중국과 아라사를 차례로 한국에서의 독점의욕을 싸워 물리치고 마침내 한국 지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은 적어도 1905년 이후가 된다. 그런데 이 때 이미 일본의 商人이 이 땅에 거침 없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상업발달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商權을 지배하고 말았다. 그 좋은 예로 가축 구두의 이야기가 있다. M항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原永吉廣이라는 일본 상인이 이 가축 구두에 관한 廣告를 내었는데 그 광고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弊店이 만든 가축 구두들은 오로지 流行을 好主한 것으로써 또한 질기기로 말하드라도 비교할 수 없으며……」云云 하여 있다.

이 밖에도 梧村雜記는 1904, 5년 당시의 사회 사정과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허다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제공하여 주고 있다.

1970

海外學術雜誌預約拜受

迅速・正確한 情報의 收集과 活用은 現代生活의 에센스입니다.
 弊社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마하는 굴지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를 망라한 海外代理店網을 形成하므로서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問談하신 即時 案内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쿠평대행기관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주소 · 서울鍾路三街13-5
 전화 · 73-4262 74-3783
 國際私書函2558号